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첨단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8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0월 6일 (음력 9월 8일) 월요일

롯데제과 과자서도 멜라민 검출

먹을거리 '패닉' 오나

광주 유통업체 과자·분유류 매출 급감

국내 다국적 제과기업과 롯데제과 과자류 4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추가 검출된데 이어 수입 채소류에 대한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멜라민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는 과거 기생충 김치, 불량만두, 광우병 괴담 보다 파괴력이 훨씬 커 광주·전남 유통업체에서 관련품목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산을 빼면 먹을 게 없는 우리 식탁환경을 감안할 때 '먹을거리 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마즈의 '땅콩 스니커즈 펀사이즈', 롯데제과 비스킷 '슈디' 등 모두 7건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멜라민이 나온 중국산 가공식품은 10개 제품으로 늘었으며, 국내 대형 제과회사의 중국공장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사랑 카스타드' 등 해태제과 제품은 중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돼, 국내외 유명기업들도 멜라민 파동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내에서 우유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유마저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중국내 일부 언론들이 버섯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랴부랴 수입통관 단계와 유통중인 수입 버섯류와 양상추·당근·브로컬리·우엉 등 채소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에 나섰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를 쉽게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농·축·수산물은 500여종, 287만6천t(21억7천만달러)을 넘어 전체 수입품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홍수시대인데 이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한숨지었다.

멜라민 불똥은 유통업계로까지 튀고 있다. 5일 광주지역 백화점·할인점 등에 따르면 멜라민 검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과자와 커피믹스·분유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에서 지난 주말 과자 매출은 전 주말보다 21%, 커피믹스는 12% 줄어들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최근 2주일 동안 과자 매출 25%, 커피믹스 매출은 12%대로 감소했다.

반면 유기농 신선식품을 비롯해 과일, 원두커피 등 멜라민 파동에서 비껴나 있는 제품들은 '특수'를 누리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 지난주 유기농 신선식품 매출은 전주보다 17% 신장됐고 누룽지·과일 등의 매출도 10~15% 급증했다. 또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고조되면서 대체상품으로 녹차·생강차·대추차 등 우리 전통차의 매출도 10% 이상 늘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F1머신의 '도넛' 묘기 F1한국 그랑프리 유치 확정 2주년 기념 '포뮬러원 시티 쇼크(Formula 1 City Shock)' 행사가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12시 20분 부터 1시간 50분 동안 열린 이날 행사에서 BMW 자우버 F1팀의 주전 선수 닉 하이드펠트가 차량을 360도 회전하는 묘기인 '도넛' 시범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0억원대 F1머신' 광주 금남로 쾌속 질주

100억 원대에 달하는 '지상의 전투기' F1 머신이 5일 광주 금남로를 질주했다.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1시간50분 동안 열린 F1 한국 그랑프리 유치 확정 2주년 기념 '포뮬러원 시티쇼크(Formula 1 City Shock)' 광주 행사는 금남로를 뜨거운 열기로 달궜다.

전남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날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 두번째로 열렸으며, 옛 도청 분수대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부터 카톨릭센터까지 450m 가량을 전면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연봉 500억 원을 받는 BMW 자우버 F1팀의 주전 드라이버(운전자) 닉 하이드펠트(31·독일)가 흰색 F1머신을 타고 등장하자 주행로를 따라 늘어선 관중들은 함성과 박수로 맞이했다.

타이어에서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굉음과 함께 출발한 F1머신은 단 2초 만에 450m 구간의 주행을 끝마쳤으며, 특히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도넛'묘기를 잇달아 펼칠 때는 1천여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환성을 터뜨렸다.

순간 속도 350km를 자랑하는 F1 경주용 차는 이날 10여 분간의 주행을 위해 무려 16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번 행사는 F1경주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F1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전남으로 유치,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늘부터 국감… 경제 실정 등 공방 예고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국감 첫날인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일통상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5일까지 20일 동안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참여정부 실정 부각을 통한 향후 국정운영 기틀 확립을 목표로 한 여당과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전·현 정권의 실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9일 광주지방기상청 ▲13일 광주시교육청, 전남대학교·전남대병원, 광주지방관세청 ▲14일 광주고법·광주지법, 광주고검·광주지검,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5일 장흥교도소 시찰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지방국세청 ▲21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순으로 진행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8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2008.10.12(일) 09:30
◉ 장소:모교운동장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양 재 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정부 요직 인사 영남 42%·호남 15%

금융부문 공공기관장 영남출신 67% 차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정부 자료를 분석,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정부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핵심 공공기관장 및 감사 등 285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전체의 42.1%(120명)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경기 출신이 21.7%(62명), 호남은 15.4%(44명), 충청 12.9%(37명), 강원 출신은 4.2%(12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에 영남 출신이 40% 이상 차지해 특정지역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영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31.4%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명박 정부 고위직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은 이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호남 출신 고위직 인사 비율은 인구 모집단 비율(25.2%)에 비해 무려 9.8% 포인트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24개 금융부문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은 영남권이 16명(66.7%)에 이른 반면 서울 3명(12.5%), 호남 2명(8.3%), 충청 2명(8.3%), 경기 1명(4.2%)으로 나타나 타 분야에 비해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 학교 별로는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유명 대학 출신이 185명(64.9%)을 차지한 반면 지방대는 36명(12.6%)에 불과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상무지구 (빌딩) 5층